미완으로 끝났지만…국민 박수받은 특검

박영수 특검 오늘 종료

이재용 등 기소 피의자만 20명

재판 회부 오늘 일괄처리 예정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기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장정'이 28일로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동안의 막을 내린다. 이번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작년 12월 1일 출범했다.

특검 외에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에 달해 인력 면에서도 '슈퍼 특검'이란 평가를 받았다.

쉴 틈 없이 달려온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 직전인 27일 1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 기간 내 기소 피의자만 총 20명을 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특검이 처음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0일간의 공식 수사 기간에 입건한 피의자들을 28일 대거 재판에 넘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8일 기소될 인원은 10~15명 안팎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작년 12월 21일 수사 착수 이래 이미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기소대상자가 최대 28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식 활동 마지막 날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공식 수사를 마무리 짓는 셈이다.

기소대상자에는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최씨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최씨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 등도 기소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특검보는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대부분 기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을 구속기소 했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특검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대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8일까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기간 제한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준비도 마친다.

역대 특검 사상 최대 인원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특검팀은 법무부와 잔류 파견 검사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효과적인 공소 유지와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최종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특검 "수사연장 불가 유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검은 수사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12번의 특검 가운데 세 번째로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앞서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이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승인 거부로 각각 연장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수사 부담' 의식 연장땐 대선구도 변수 우려

황교안 수사연장 불승인 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 입장문을 통해 가장 중대한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정 안정'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의적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2인자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수사를 연장하기에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수사가 3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 '자연인 박근혜'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특검수사가 연장되면 향후 수사결과가 대선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최근 주춤하고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조사, 별도 수사팀 꾸려질 듯

'국정농단' 수사 다시 檢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특검이 못다한 수사가 남은 터라 앞서 수사한 검찰이 다시 공을 넘겨받는 상황이 됐다.

특히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검찰이 성사하지 못한 채 특검의 몫으로 넘겨졌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한 난제를 검찰이 직접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보다 사건의 규모가 훨씬 커진 가운데 검찰 내 어느 조직이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남은 의혹이 여전히 방대한 만큼 이 사건만 맡는 별도의 수사팀 구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이전에 특별수사본부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특검이 출범했기에 수사본부의 '부활' 대신 새로운 수사팀이 마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해 초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시키고자 이 수사단을 설치했는데, 출범 당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부터 줄곧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파헤쳤다.

향후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은 박 대통령 직접 수사를 비롯해 삼성 외에 SK나 롯데 등 여타 대기업 수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사도 매듭지어야 한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팀까지 구성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곧장 '자연인'이 되면 검찰은 극단적인 경우엔 구속을 비롯해 강제수사 수단을 쓸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의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도리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5~7월 성주에 사드배치

롯데 '부지 제공' 의결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사드배치 부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롯데 측의 '의결'을 학수고대했던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롯데 측과 부지 확보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SOFA 제2조 1항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되어 있다.

공여 절차가 끝나면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건설 공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 기지 설계작업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公認 國家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4기)	광주교육대학교(15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 2017. 3. 3.(금) 08: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7. 3. 4.(토) 08: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 2017. 3. 6.(월) 14:10 (고급반) ·목요일 오전반 : 2016. 3. 2.(목) 08: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6. 3. 4.(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18(수)~3. 4.(토)	2017. 1.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2 .(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 강 료	₩360,000 (예금주 : 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 : 광주교대)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무료공개 강의일시
조선대 3월 2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교육대 3월 6일(월)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봄.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교육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6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 :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1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신청 : 과정명클릭 〉 수강신청 〉 핸드폰인증 〉 신청 〉 수강료납부
·오프라인신청 : 방문접수, Fax접수(520-4245), 전화접수(520-4241~4243, 4248)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기간안내 : 수강신청기간 : 2017. 2. 1(수) ~ 2. 28(화)
교 육 기 간 : 2017. 3. 6(월) ~ 6. 12(월)
매주 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